

국어 의문사 · 부정사 의문문의 초점 실현에 대한 음향음성학적 연구

박미영 · 안병섭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Acoustic Phonetic Study about Focus Realization of *wh*-word Questions in Korean

Park Mi-young · Ahn Byoung-seob

(Spoken Language Information Lab, Institute of Korean Culture, Korea University)

pikel@unitel.co.kr · abs001@empal.com

요약

국어에서 *wh*-단어가 포함된 의문사 의문문과 부정사 의문문은 통사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지지만 의미적으로는 중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두 의문문은 문장으로 발화될 때 음성적으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운율 특성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발화 차원에서는 더 이상 중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의성의 해소는 두 의문문의 초점이 달리 실현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의문문의 억양 연구를 초점의 작용 범위와 문말 억양의 차이, 강세구 형성의 유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의문사와 부정사의 의미는, 이에 후행하는 서술어와 형성하는 강세구 유형에서 우선적으로 그 의미가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국어의 *wh*-단어가 초점으로서 작용하는 운율적 돌돌림을 좀더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하였다. 그리고 의문사·부정사와 후행하는 언어단위의 강세구 형성 (accentual phrasing) 유형, 의문사·부정사 의문문 전체 문장 억양의 실현 양상, *wh*-단어 자체의 음의 높낮이 (pitch contour) 실현 유형, 문말 억양 (boundary tone)에 서 음의 높낮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 연구 목적

본고는 국어에서 어휘적 중의 관계에 있는 *wh*-단어인 의문사와 부정사(이후 이 둘을 함께 뜻할 때는 '의문사 형태'로 칭함)가 문장 층위에서는 어떠한 운율 특징들로

실현되는지 음향음성학적 방법으로 그 차이를 살피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의문사 의문문과 부정사 의문문이 각기 어떻게 다른 운율적 돌돌림 (prosodic prominence)을 받아 초점으로 실현되는지에 관해, 강세구 형성 유형과 관련시킨 선행 연구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어 의문사 형태와 서술어 사이에 여러 개의 언어단위들을 삽입시켜 가면서 의문사와 관련한 강세구 형성 유형을 살핀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우리는, 국어의 두 가지 의문문이 초점 실현 방법에 의해 구별되며, 초점의 실현 여부는 강세구 형성 유형이 아닌 다른 운율 특성의 차이에 의해 판별됨을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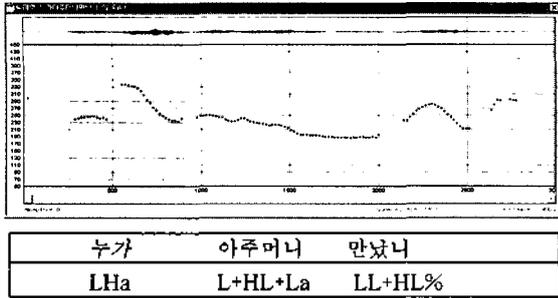
2. 선행 연구 및 문제 제기

국어의 의문사 형태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초점의 실현에 관한 연구는 진은주(1991)가 있다. 이 연구는 악센트와 관련한 운율 자질로 고저, 길이, 세기를 논의하였고 이 가운데 초점 표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길이이며, 기본주파수와 세기도 상호작용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국어 문장의 운율구 형성에 관한 논의는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가장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Sun-ah Jun & Mira Oh(1996)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정사 의문문은 국어의 의문사 형태와 후행하는 서술어 사이에 강세구 경계가 생긴다고 기술하였다. 이와 다르게 의문사 의문문은 의문사 형태와 서술어 사이에 강세구가

1) 본고에서는 음절 이상의 구조를 언어단위라고 하였다.

한다는 선행 연구들은 '의문사+서술어' 구성의 통사 구조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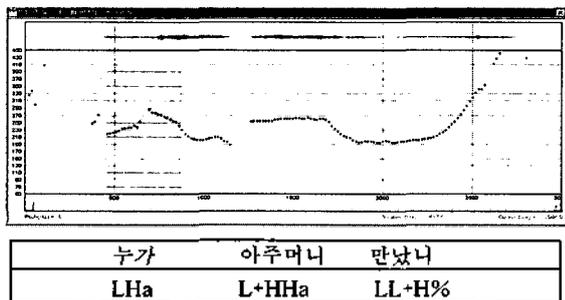
<그림 1> 의문사로 실현한 '누가'의 억양구 형성

따라서 의문사 의문문의 경우, 의문사와 후행하는 언어단위 사이에서 강세구를 해지한다는 주장은 후행하는 언어단위가 서술어일 때만 적용된다. 본고에서 제시한 다양한 통사 구조들은 이러한 강세구 해지의 기준에서 논의될 수 없다.

강세구 해지가 초점을 확인하는 국어 문장 억양의 특징에서 제외된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 의문사의 초점 실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다음 장에서 논의하겠다.

4.2 의문사 형태의 음의 높낮이 실현 양상

의문사 형태는 두 의문문에서 대체적으로 그 음의 높낮이가 LHa로 나타난다. 그러나 의문사 의문문과 부정사 의문문에서 의문사 형태인 '언제, 누구'는 각기 그 음의 높낮이 실현에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음의 높낮이의 실현은 위의 <그림 1>과 다음의 <그림 2>에서와 같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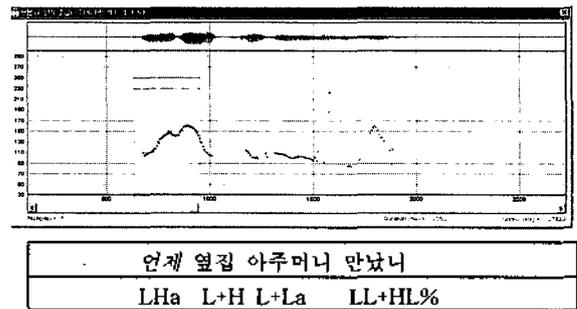


<그림 2> 부정사로 실현한 '누가'의 억양구 형성

본 실험에 의하면 의문사는 초점을 실현시키기 위해 두 가지 운율 실현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의문사 형태의 첫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의 음의 높낮이 차이를 크게 실현시킨다. <그림 2>의 부정사의 음의 높낮이는 첫 음절이 L-tone으로 시작하여 두 번째 음절의 H-tone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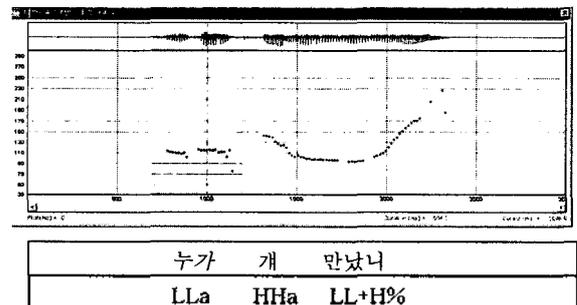
완만한 상승 모양을 그리고 있는 반면에, <그림 1>의 의문사의 음의 높낮이는 L-tone이 일정한 평형 구간을 보이다가 두 번째 음절이 H-tone으로 실현된다. 이는 의문사가 초점을 받는 과정에서 H-tone의 분명한 돌출음을 실현시키기 위해 L-tone과 음의 높낮이 차이를 확실하게 발화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두 의문사 형태는 각각의 H-tone의 음의 높낮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의문사의 H-tone의 정점은 의문사 의문문에서 주로 최대값으로 나타난다. 부정사 의문문에서는 부정사의 H-tone이 문말 억양의 정점 H%보다도 작고, 의문사의 High-tone보다도 낮게 실현되므로 부정사 의문문에서 부정사는 돌출되지 않는다.

초점 실현의 두 번째 방법은 의문사의 첫 음절 L-tone이 H-tone으로 상승을 하면서 두 번째 음절이 발화되기 전에 두 번째 음절에서 실현되는 H-tone 값만큼 음의 높낮이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이는 첫 음절의 L-tone을 높이 실현시켜 의문사 전체가 돌출리게 하는 방법이다.



<그림 3> 높은 L-tone으로 실현된 의문사 '언제'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정사 의문문에서 부정사로서 의문사 형태가 LLa로도 실현되는 예가 다음의 <그림 4>와 같이 2명의 발화자에서 나타났다.



<그림 4> LLa로 실현된 부정사 '누가'의 억양구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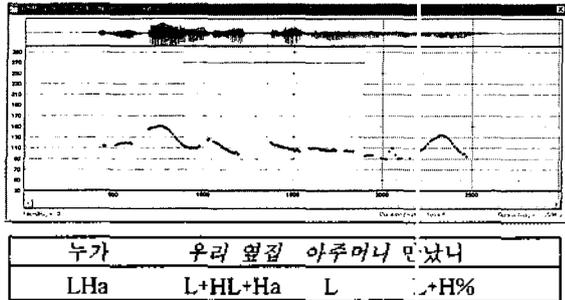
이것은 부정사가 초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문사 의문문에서 의문사 초점 실현 확인의 중요한 근거는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하던 강세구 해지가 아니라, 의문사 형태 자체의 음의 높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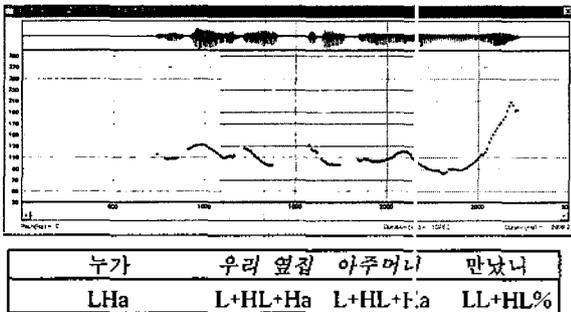
이 실현 양상이라고 본다.

4.3 의문문의 전체 억양 실현 특성

다음의 <그림 5>, <그림 6>에서는 전체 문장의 억양 곡선 실현 양상을 비교해 보았다.



<그림 5> 의문사 의문문의 전체 억양 곡선 실현 양상



<그림 6> 부정사 의문문의 전체 억양 곡선 실현 양상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문장의 전체 억양 곡선이 의문사에 최대값의 높낮이가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강세구나 단어간에 상대적인 돌돌림이 없이, 일반적인 하강 곡선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부정사 의문문에서는 부정사가 상대적인 높낮이를 갖지 않고, 문장 전체의 억양 곡선이 전반적으로 높낮이가 두드러지며 각 강세구 내의 H-tone의 실현 값은 부정사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국어의 의문사 형태는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의문사 자체에 음의 높낮이 실현 양상에 의해 초점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의문사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 구간은 초점의 범위에서 제외되게 되며 평탄한 억양 곡선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억양 특징은 의문문에서 초점 받은 의문사를 더욱 돌돌리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부정사 의문문에서는 부정사가 전체 문장 내에서 상대적인 음의 높낮이를 갖지 않고, 전반적으로 문장 전체에서 지속적인 음의 높낮이가 나타나 뚜렷한 억양 곡선으로 실현된다. 즉 부정사 의문문의 경우에는 서술어 앞에 강세구 경계를 항상 가지며, 이 서술어가 하나의 억양구로서 부정사 의문문 전체의 중요한 의미론적 위치를 갖는 초점을 문말 억양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5. 결론

1) 초점을 받은 의문사는 후행하는 단어와 강세구 해지를 일으킨다는 선행 연구와 달리 의문사와 서술어 사이에 여러 개의 단어를 삽입시킨 결과 의문사 뒤에서 강세구 해지가 없었으며, 오히려 서술어와 이에 선행하는 단어 사이에 강세구 해지가 일어난 경우가 많았다.

2) 의문사의 초점 실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두 번째 음절 H-tone의 음의 높낮이를 첫 음절의 L-tone과 크게 두면서 의문사 전체를 돌돌리게 하는 방법과 첫 음절의 L-tone을 두 번째 음절이 시작되기 전에 의문사 정점만큼 실현시키는 방법을 밝혀낼 수 있었다.

3) 의문사에 초점을 받은 의문사 의문문은 대부분의 의문사가 문장에서 가장 높은 정점을 이루었고 의문사에 후행하는 단어들은 뚜렷한 억양의 굴곡을 보이지 않고 대체로 낮고 낮은 억양 곡선을 보이다가 문말 억양에서 HL%로 실현되었다. 이와 반대로 부정사 의문문은 부정사에 초점이 실현되지 않았고, 후행하는 단어들도 분명한 굴곡의 억양 곡선을 그리다가 문말 억양에서 높은 H%로 실현되었다. 이 과정에서 의문사 의문문은 서술어가 이에 선행하는 단어와 하나의 강세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부정사 의문문에서는 서술어와 이에 선행하는 단어 사이에 분명한 강세구 경계를 두었다.

참고문헌

1. 이호영, "국어 핵억양의 음향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38, 대한음성학회, 1999.
2. 전은주, "한국어 '초점'(focus)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3. Sun-ah Jun, K-ToBI labelling conventions, ver. 3.1, 2000.
4. Sun-ah Jun, Mira Oh, A Prosodic Analysis of Three Types of Wh-Phrases in Korea, *Language and Speech*, 39, 1996.
5. 김미란 외, "초점과 관련된 의문문 억양 패턴 실험", 음성과학 7, 한국음성과학회, 2000.